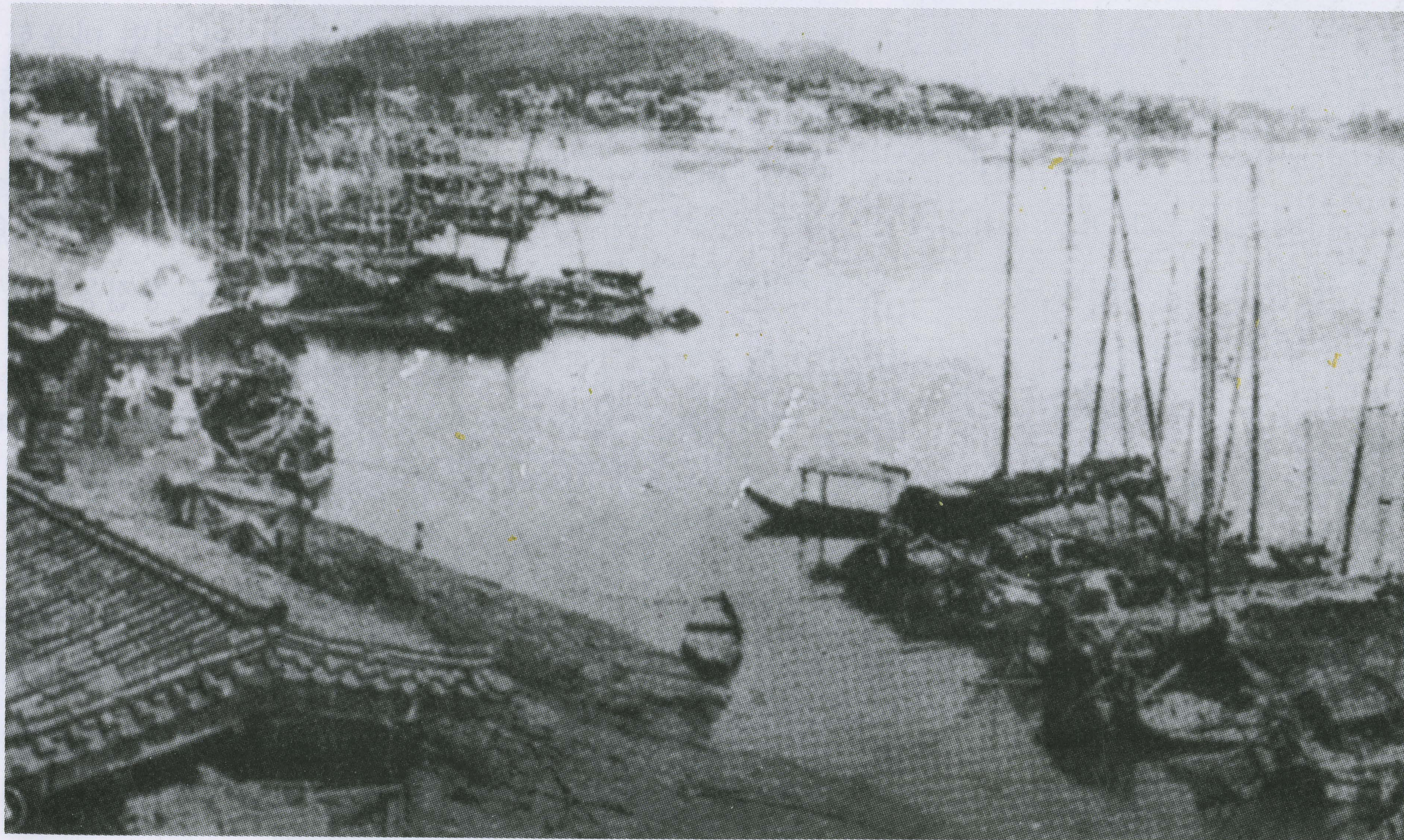


第3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마포나루굿



■ 일시 : 1995.10.11~10.13 ■ 장소 : 공주 곱나루(관아마당)

서울특별시

마포나루 굿

마포나루는 조선시대 삼개라고도 불렀던 한강 하류의 포구로서 충청·경기·전라·황해도 등지에서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조세곡물 및 농수산물을 실어나르는 한강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구중의 하나였다.

또한 새우젓 항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서해에서 잡은 새우를 소금뿌려 배안에 저장했다가 만선이 되면 마포항으로 들어와 동막에서 만든 새우젓 항아리에 옮겨 담아 도성안으로 팔려나가는 市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복개되었지만 용강동시장 뒷쪽이 1960년대 초반해도 새우젓 배가 만선기를 펴며 출입하던 포구였다.

이토록 많은 배들이 왕래했던 마포항 바로 앞에는 「율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우리나라 희귀 성씨인 魚씨, 箕씨, 片씨, 咸씨, 馬씨 등 150여 가구가 살면서 조선업에 종사했다. 지금은 한강개발과 여의도 건설에 밀려 마포구 창전동으로 집단 이주되어 살고 있으며, 밤섬에 있던 「사당」도 이때 창전동 와우산으로 옮겨졌다.

본래 마포나루 주민과 밤섬 주민들은 배를 만들어 진수할 때나 일년중 단오날이 되면 배의 무사항해와 풍어를 비는 굿을 했는데 이 때는 사당에 가서 神에게 告하는 「神맞이 굿」에 이어 나루터와 배 앞에서 「나루굿」을 했으며, 배에 올라 「뱃고사」를 지냈다. 뱃고사가 끝나면 선주나 객주가 굿패를 초청하여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뒷풀이굿이 행해졌다.

이 마포나루굿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을 축제로 행해졌으나 그 이후 밤섬에서 이주한 마포구 창전동 주민에 의해 부군당에서 매년 정월초와 단오에 굿을 하여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91년에 와서야 마포에서 대를 이어 조선업을 하며 살아온 함갑순(84세)옹과 쌀 1천석을 실을 수 있는 배 2척의 선주였던 박성래(81세)옹의 증언을 토대로 권정희(87세) 할머니의 굿과 악사 이윤성(84세)옹에 의하여 마포나루굿이 복원되어 매년 10월에 마포 구민행사로 재현되고 있다.

부군당 신맞이 곳

옛날 마포나루 부근 용강동에는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부군당이 있었다.

선주들은 1년에 한번 길일을 택해
뱃고사를 지내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신을 맞이하는 굿을 하고 신을 모셔와
뱃고사 준비를 한다.



나루굿

도 10빛스 경도부



서울에서 제일 큰 마포나루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배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성시를 이루고, 자연히 뱃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큰 배를 소유한 선주들이 많아 안전 운행을 위해 큰 굿이 성행하였다.

마을의 부군신을 맞이한 후 나루에 내려와 물의 용장군 신을 다시 맞으며 마을의 안녕과 배의 안전 운행을 기원한다.

뱃고사

考證 · 構成 · 演出指導

10 卷 長

나루에서 용장군 신을 맞이하는 큰
굿이 끝나면 만신들은 배에 올라가
배의 구석 구석을 돌며 뱃길의
무사고와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굿을
하는데, 이때 뱃일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배치기 노래를 구성지게
부른다.



뒷풀이

부도 벗



뱃고사가 끝나면 만신들이 나루로 내려오는데 이때 나루에서는 선주나 객주집에서 만신을 초청하여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뒷풀이 굿을 하는데 굿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1년 내내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고 신명나게 논다.

考證 · 構成 · 演出指導

■ 고 증

- 함 갑 순 옹 (당시 조선업)
- 박 성 래 옹 (당시 선주)
- 권 정 희 여사 (당시 만신)
- 이 윤 성 옹 (당시 악사)

■ 작품구성 및 연출지도

- 홍 성 학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협회 이사)
- 김 이 경 (무속연구원)

빛을 이

尊能出漸 · 如謝 · 驚春



부고사가 끝나면 민선출구 다우로
 일러오는데 이제 다우에서는 연구나
 리우집에서 만나는 조경하여 저술의
 만일과... 서해상을 기원하는 저술이
 (것을 유년과 같이 알려준 저술...
 사자들... 1년... 저술...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며
 간절하게 한다.